學校法人 城西大學

JOSAI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Promotion of Art and Science
(JICPAS)

Newsletter

Josai University Corporation
3-26 Kioi-cho, Chiyoda-ku, Tokyo ☎03-6238-1300 http://www.josai.jp/

學校法人 城西大學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03-6238-1300
http://www.josai.jp/

No.3

강연회 심포지움

강연회
「하면 된다」

2006년6월6일(화) 11시10분～12시40분
동경기오이쵸 캠퍼스B1F홀

강사 : 小柴昌俊 (코시바 마사토시)
동경대학교 명예교수, 2002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주체 : 죠사이대학교 경영학부

講演会
シンポジウム

2006년6월6일(화) 11시10분부터 동경기오이쵸 캠퍼스 B1F홀에서, 200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동경대학교 명예교수 코시바 마사토시님의 특별 강연회 「하면 된다」가 개최되었다.강연은 사카도캠퍼스의 세이코홀에도 원격 동시중계 되었다.

코시바님은「우주 뉴트리노의 검출을 위한 파이오니아적 공헌」의 공적으로 200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했다.

코시바 마사토시 님

뉴트리노는 우주를 구성하는 소립자로 우주가 창성될 때에 대량으로 생성되어서, 현재도 우주에 가득 차여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우리들의 체내를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뉴트리노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소립자와의 상호작용도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부터 지구상에 대량으로 날아 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물질이다.

코시바님은 기후현 카미오카쵸에서 광산의 폐갱을 이용해 안에 큰 저수조를 만들어 우주 뉴트리노를 검출하는 것을 고안하였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뉴트리노가 수조의 안을 통과할 때, 아주 적은 확률로 수분자 속의 전자와 충돌해, 휘어져 날아온 전자가 수중을 통과하는 순간 생기는 작은 체렌코프 복사를 관측하고 검증했다. 또, 전자가 발하는 미약한 빛을 되도록 새지 않게 해서 관측하기 때문에, 저수조의 용적을 크게 해서 그 주변에 광전자배관을 전면에 깐 거대한 장치를 설치했다. 그 거대한 장치는 카미오카에 설치되어진 뉴트리노 측정장치로 된 것에 관련하여, 카미오칸데(KAMIOKANDE)로 불리고 있다. 카미오칸데는 지하 1000미터에 있고 높이는16미터로 약1000개의 광전자증배관이 설치되어 있다.

강연에 있어서 코시바님은 주로 3가지에 대해 말하였다. 그 하나는「하면 된다」의 주제에 관련하여 중학생 시절에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고생하신 것을 말하였다. 당시, 아버님은 만주에 월임해 계시고 코시바님은 양친과 떨러져서 요코스카시의 백모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다. 그런데 소아마비로 인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목욕할때도 백모의 도움이 없으면 안되는 대단히 괴로운 추억의 말씀이 있었다. 허약하기 때문에 음악가나 군인이 되는 꿈은 좌절하였지만, 차츰 물리학자가 되는 꿈이 싹트기 시작하여 그후 노력을 계속해「하면 된다」의 신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였다.

두번째는 노벨상 수상의 대상이 된 연구 내용을 소개하셨다. 코시바님은 우주로부터 지구상에 날아오는 뉴트리노를 관측하기 위해 전술의 카미오칸데를 고안해 건설하고 그것을 이용해 태양이 발하는 뉴트리노나 초신성 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뉴트리노를 측정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17만 광년의 저쪽에 있는 초신성의 폭발에 의해 발생한 뉴트리노를 관측하는 것에

성공했을 때의 말씀은 청중에 있어서도 큰 감동이었다. 우주 뉴트리노의 연구는 코시바님이 퇴임하신 후에도 후진의 연구자들에 이어받아서 보다 거대한「슈퍼 카미오칸데」나「캠랜드」가 건설하게 되어 세계의 연구자의 관심을 모으면서 진전하고 있다.

세째는「금회는 경영학부 주최의 강연회이기 때문에 특히 말하고 싶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한 후에 수상한 노벨상의 상금을 기금으로 하여 일본의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해 개설된「평성기초과학재단」에 대해 설명을 하셨다. 이 재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코시바님은 저서『하면 된다』(新潮文庫)등으로 얻은 수입을 이 재단에 기부할려고 한다고 설명하시고 이 강연회의 청중에도 재단에 협력를 요청하였다.

강연 후에서 나온 몇명의 질문에도 코시바님은 극진하고 정중한 설명으로 답변해 주였다. 양 강연장을 거의 만석으로 한 청중은 노벨상의 연구 분위기를 조금이지만 맛보게 되고, 코시바님의 대단히 소탈한 인품도 경험하고 온화한 기분이 되는 훌륭한 강연회였다.

미즈타 이사장과 코시바 선생, 이야기가 활기를 띠고

영화강좌

「『우월이야기』 미조쿠치 켄지 사후50주년기념 대담」

講演会
シンポジウム

2006년6월17일(토) 오전10시30분～오후4시30분
동경기오이쵸 캠퍼스B1F홀

프로그램 :

제1부 영화상영『우월이야기』
오전10시30분～오후12시6분

제2부 미조쿠치 켄지의 세계
강사 : 시노다 마사히로(영화감독, 죠사이국제대학교객원교수)
오후1시30분～오후2시10분

제3부 대담『우월이야기』와 중세에 살았던 여자들
대담자 : 와키타 하루코(죠사이국제대학교 객원교수, 2005년도문화공로자)
시노다 마사히로(영화감독, 죠사이국제대학교 객원교수)

사회 : 무라카와 히데(죠사이국제대학교 교수)
주최 : 죠사이국제대학교 미디어학부
협찬 : 키네마순보영화종합연구소
카도카와헤럴드영화

2006년6월17일(토), 동경기오이쵸 캠퍼스에서 죠사이국제대학교 미디어학부 영화강좌「『우월이야기』 미조쿠치 켄지 사후50주년기념 대담」이 개최되었다. 미디어학부에서는 영화문화의 수용과 발신이라는 견지로부터 작년의「나루세 미키오 생탄 백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이어 계속해서 개최된 것이다. 당일은 대학 관계자, 학생을 포함해 200명을 넘는 분들이 참가하셔서, B1F홀만은 다 입실할수 없어서 3층의 시청각 교실에서도 청강하게 하는 정도였다.

시노하라 마사히로 님

제1부로써 오전10시 30분부터 영화『우월이야기』를 상영했다. 오후의 제2부에서 일본영화를 대표하는 영화감독이고 죠사이국제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는 시노다 마사히로님에 의한 강연「미조쿠치 케지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시노다님은 마쯔타케에서의 영화수행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미조쿠치 켄지의『우월이야기』와 이탈리아의 로베르트 롯세리니 감독의『무방비 도시』를 비교 검토했다. 『무방비 도시』는 제2차 세계대전중, 이탈리아의 서민이 받은 비참한 상황을 그리고, 전후의 영화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작품이다. 한편,『우월이야기』는 약탈이 횡행하던 전국시대을 그리고 있지만, 미죠쿠치는 이 작품을 제2차대전의 서민이 받은 비참한 상황을 반영했다 라고 전해지고 있다. 시노다님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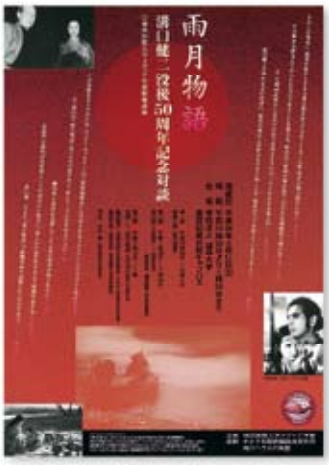
일본의 영화계가『무방비 도시』의 리얼리즘에 압도되고, 또 미죠쿠치 켄지도 이탈리아의 네오리아리즈모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이야기 했다. 파시스트에 살해당한 안나 마냐니가 연기하는 서민의 주부와, 산적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미야키를 연기하는 타나카 기누요를 비교하면서, 미죠쿠치 켄지의 훌륭함은 현실의 리얼리즘의 세계로 부터 주인공을 죽음의 세계로 유혹해, 인간의 아수라를 노우형식(能形式)으로 읊던 현세와 영혼 명계가 교차하는 세계에 도달했다 라고 평가했다.

대학에서 중세 예능사를 전공한 시노다님의 분석은 미죠쿠치 켄지의 리얼리즘이 미야시타의「차분한 정감」의 세계로 부터, 나아가 쿄마찌코가 연기한 쿠즈키 저택에 사는 와카사의 망령을 귀신의 차원에 까지 도달해, 이 차원의 다름을 노우(能)로 말하기 전 지테, 후 지테로

보고, 「리얼으로 보아 나가던 중에 차분한 정감이 귀신의 세계에 까지 캐메라아이가 들어가 미조쿠치 독특의 응시공간 응시시간이 화면을 지배해 나간다」라고 분석했다. 제3부에서는 중세여성사가 전공으로 죠사이국제대학교의 객원교수로 있고 2005년도의 문화공로상 수상자로 있는 와키타 하루코님을 맞이하여「『우월이야기』와 중세에 살았던 여자들」이라는 테마로 와키타 하루코님과 시노다 마사히로님의 대담이 되었다.

와키타님은「예술 작품에 역사의 다름을 지적하는 것은 유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답습하고 미조쿠치 작품과 역사 진실의 다름을 지적했다. 그 첫번째로,「토기는 여자가 만들고, 자기는 남자가 만든다. 고대 중세에서는 여자가 만든 토기를 남자가 팔러 나갔고 흙의 채취나 장작 운반등의 힘든 일을 한다. 장면에 설정된 키타오우미(일본지명)에서는 찌쿠마탕이 유명하고 여자들은 찌쿠마메이진(신사)의 축제에 있어서 큰 솥에 자신과 교제한 남자의 수 만큼 냄비을 준비해서 공양하는 풍습이 있다」라고 경묘한 어조로 관객을 미료시켰다. 또,「모리마사요키가 연기하는 겐주로우는 부인이 만든 토기를 팔러 나가, 그대로 벌어온 돈을 가지고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재미있는」이라고 말해서 강연장을 뜨겁게 했다. 게다가,「쿄토부근이나 가까운 곳에서는 촌락과 도시의 공동체 편성이 강했고, 산촌은 간단히 공격 당하는 일이 없었다. 군이 제멋대로 산촌에 들어가 강탈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있었다. 무력하다고 생각 되었던 촌락의 백성이나 여자들은 강했다」고 지적 하였다.

자신도 노우(能)무대에 연기하는 연기자로써『노우가쿠(能樂) 속의 여자들』의 저서도 있는 와키타님은『우월이야기』의 노우 장면을「노우가쿠를 시작하는 고전 예술을 가지고 온 것은, 이 작품이 고전 예술의 전통에 서서, 그 계승을 답습하고 만들어진 것. 귀인의 딸은 왕조풍의 우아한 모습으로 한가로운 에텐라쿠(아악의 곡명)의 마디에 맞춰 아름답게 춤을 춘다. 거기에 전국무장의 망령을 목소리 만으로 표현하는 아버님의 노래를, 노우의 반주로 들려주는 것은 굉장하다. 귀인의 딸의 우아함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우가쿠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전통을 답습하면서 영화적 수단에 극화한 미조쿠치 켄지의 공적을 지적 하였다.나아가,



「이런 영화적 수법이 아키나루(영화감독)의『사성의 음』과는 다른 우미함,『황폐한 집』이 전란중의 서민생활을 그리고, 그 두사람을 한사람의 남자를 모개로서 연결한 면에, 의외와 전후사회의 역사성을 가진다. 출세와 부자에 광주하는 남자들, 평화를 희구하고 생활과 자식을 지킬려고 하는 여자,『황폐한 집』에는 없는 자식이 더해진 것으로 부터도 그것을 엿볼수 있다」라고 지적 하셨다.

시노다님은 망령이 된 미야키가 겐쥬지로를 본래의 집으로 인도하는 장면에서「전쟁터의 지옥을 떠돌아 다니던 주인공의 남자(겐쥬지로우)가 도달한 이 화염의 따뜻함은, 이 영화가 만들어진 메세지이고 미조쿠치 켄지의 라스트컷의 긴 응시는 영화로 밖게 체험할 수 없는 시간의 체험이고, 그것은 영화의 힘을 표현한 순간이기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1953년에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우월이야기』는 당시에 아직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일본영화의 실력을 보여 주었던 의미에서도『우월이야기』의 미력에 홈벅 젖었고, 또 두사람의 열기있는 토크에 많은 질문이 있었고 활기있는 충실한 대담이 되었다.

현대정책학부 개학부 기념 학술 강영회

「일본과 중유럽 새로운 관계구축을 향하여」

講演会
シンポジウム

2006년5월31일(수) 오후6시～오후8시
동경기오이쵸캠퍼스B1F홀

강　사 : 조르탄슈디(전 재일 헝가리 대사)
주　최 : 죠사이대학교 현대정책학부

조르탄슈디 님

지난5월31일(수), 동경기오이쵸 캠퍼스에서 현대정책학부 개학부 기념 학술 강연회「시리즈 글로벌제이션의 신조류(전3회)」의 제1회로「일본과 중유럽 새로운 관계구축을 향하여」가 개최되었다.

강연회에는 전 주일 헝가리 대사 조르탄슈디님을 초청했다. 조르탄슈디님은 구 동유럽권의 외교 관료 육성을 전담했던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에 진학하여 일본어를 배우고 졸업후에는 헝가리 외무성에 근무, 주일 헝가리 대사관원 서기관, 아시아태평양국장, 주 태국대사등을 역임하고 1995년부터 4년간 주일대사로 취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스스로 설립한 컨설턴트 회사의 대표로서 일본과 헝가리의 경제교류의 문자 그대로 다리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

조르탄슈디님의 강연회는 ①동유럽 혁명 이전의 중유럽 개념의 부활, ②동유럽의 이행 경제 제국과 이른바 발전 도상 제국과의 상이, ③EU가맹에 이르는 경위, ④2004년 5월의 EU가맹의 경제적 임펙트, ⑤일본의 국익 창출을 향하여 중유럽과의 새로운 관계구축의 필요성, 다섯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헝가리를 중심으로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등의 중유럽 제국은 중세이래,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면서도 로마 카톨릭에 기초한 일체감 있는 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중 제국하에서 부다페스트는 19세기말에는 유럽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의 하나였다.

그러나, 제1차대전에 의한 제국의 해체, 제2차대전의 소련군에 의한 점령에 의해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포텐셜을 장기에 걸쳐 폐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국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임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수준과 정비된 인프라를 가진 점에 있어서 이른바 발전도상국과는 다르다. 덧붙여 EU 가맹이 구 소련동구권과의 인적관계나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는 등, 고유의 어드밴티지를 갑자기 두드러지게 해오고 있다.

조르탄슈디님은 강연의 결말로 중유럽 제국의 어드밴티지에 좀더 일본은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고 보다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쌍방의 국익을 높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청하고 있던 학생뿐만아니라 교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선하고 흥미 깊은 강연 이었다.

국제강좌

「세계에 비친 일본~일본재발견」(시리즈 전6회)」

講演会
シンポジウム

동경기오이쵸캠퍼스B1F홀
제1회 2006년6월6일(토) 오후2시30분~6시30분
제2회 2006년7월15일(토) 오후2시30분~6시30분

강　　사 : 제1회 이오키베 마코토 (코베대학교 교수)
　　제2회 폴B왓트(미국듀포대학교 아시아연구과 과장)
공동개최 : 죠사이국제대학교 도시바국제교류재단

본 국제강좌는 죠사이국제대학교 국제교육센터와 도시바국제교류재단과의 공동개최로 기획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강연 내용을 기본으로 『국가의 품격』이라는 베스트 셀러를 쓴 후지하라 마사히코 님을 필두로 시마 노부히코님, 세러 카밍그님, 죠사이국제대학교 부학장과 국제교육센터 소장을 겸임하시고 있는 이시다 마스미 교수 등을 초빙하여 국제적 시야에서 국제이해에 대한 강연을 해 주셔서, 매회 대단한 호평이었다.

폴B왓트 님

2006년에도「세계에 비친 일본~일본재발견」이라는 테마로 전6회의 강연을 예정하고 있고, 죠사이국제대학교 동경기오이쵸 캠퍼스B1F홀에서 저명한 일본 연구자나 문화인의 여러분들이 강연할 예정이다.

6월6일(토), 일본정치사, 미일관계의 전문가이신 코베대학교 교수 이오키베 마코토님을 초청하여 『미국에서 본 일본, 일본에서 본 미국』이라는 표제로 제1회 강연이 이루어 졌다.

강연에는 미일관계150년에 대하여 유모어를 썩어서 일미관계의 역사적 구조를 해설해, 전쟁 전과 후의 관계나 요시다 시게루에 의한 경제국가, 통상국가로서의 재생, 안보조약, 재군비문제등을 살펴보고, 특히 1971~1995년까지의 경제 마찰 속에서 미일이 동맹을 소중하게 한 요인, 금후의 미일동맹과 중일협상의 행방에 대하여 말했다. 또, 금후의 일본정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상임이사국 되기는 어떻게 되는가,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등에도 언급하고 강연 시간을 잊어 버릴 정도로 흥미 깊은 내용의 강연이 되었다.

계속해서 제2회는 7월15일(토)에 미국의 듀포대학교 아시아연구과 과장의 폴B왓트님을 초빙하여 왓트님의 전문인 일본 불교에 관하여『일본인의 종교심~불교 재발견』이라는 표제로 강연이 이루어 졌다.

왓트님은 종교학으로 본 문화와 종교 관계라는 논점으로 피터버거의 성스런 천개, 신성 세계의 사회학, 지운존자, 야스다 리징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종교가 인간 질서의 정당화라고 이야기 했다. 또, 「속담」도 기준은 작지만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또, 종교간의 차이로서 자연이나 사물의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의 차이에 대하여도 언급이 있었다.

이오키베 마코토 님

강연후의 질문에서는 전쟁후의 불교에 대하여, 불과 보살의 이해에 대하여, 신사와 불각의 양쪽으로 가는 일본인이 세계로부터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가, 무사도와 기사도의 종교와의 관계에 대하여 등의 폭넓은 내용이 나와서, 마지막까지 고조된 강연회가 되었다.

후기에서는 제3회를 9월30일(토)에 예정하고 있고, 그 후도 12월9일의 제6회까지 예정되어 있다.

국제강좌 후기 스케줄

■2006년9월30일(토)
강연「포스트 코이즈미의 일본~세계로부터 본 일본 외교」
강사:시마 노부히코(저널리스트)

■2006년10월14일
강연「미구회람실기로 보는 일본」
강사:피터펜쯔아(독일 본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교수)

■2006년11월11일(토)
대상「메이지 시기로부터 본 일본」
강사:세도우치 작쵸(작가, 1997년 문화공로자 현상)
헬벨트프로쵸(죠사이국제대학교 교수, 비교문화연구소 소장)

■2006년12월9일(토)
강연「아시아로부터 본 일본, 일본에서 본 아시아」
강사:그랜D훅크(영국 셰필드 대학교 교수)

국제강좌

「세계에 비친 일본～일본재발견」

講演会
シンポジウム

대담「메이지 시기로부터 본 일본」
2006년11월11일(토) 오후2시30분～6시30분
동경기오이쵸캠퍼스B1F홀

강　　사 : 세도우치 작쵸(작가, 1997년문화공로상, 2006년문화훈장)
헬벨트 퓨로쳐(죠사이국제대학교 교수, 비교문화연구소장, 캘리포니아대학교 명예교수)
공동개최 : 죠사이국제대학교,도시바국제교류재단

죠사이국제대학교와 도시바국제교류재단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강좌는, 11월11일(토)에 동경기오이쵸 캠퍼스에서 작가인 세도우치 작쵸님을 초청하여「세계에 비친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본교의 헬벨트 퓨로쳐 교수와의 대담이 이루어 졌다. 당일은 160명을 넘은 수강자가 참가했고, 나아가 이 강연은 아와캠퍼스에서도 원격조정으로 70명정도의 카모카와 시민이 대담 모습을 관람했다.

처음에 푸르쵸 교수가 겐지이야기로부터 히쿠치 이치오우까지의 기간, 일본 문학사에 여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장시간의 공백이 있던 것을 언급하고 메이지 시기가 그 공백에 피리오드를 찍었던 시대에 있던 것을 이야기 했다. 그것을 받은 작쵸님은 여성의 문학이 창출되었던 시대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우선, 평안시대에는 「겐지이야기」나 「마카라로소시(고대의 일본문학)」 등 우수한 작품이 많은 수가 만들어 졌었지만, 카요이콘(부부이지만 같이 살지않고 한쪽이 가야만 만나는 결혼)이 남녀의 연문의 주고 받음을 필요불가결한 것이 된것, 나아가 시대의 정치가나 궁궐이 문학활동, 문학작품을 보호했던 것도 훌륭한 작품을 탄생시킨 큰 조건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씀했다. 다음에 메이지 시대의 히쿠치 이치오우를 거론하고 그녀가 소설가로서 성공하면서, 그 작품 속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전의 여성이 사회 내에서 비참한 운명을 겪었던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세도우치 작쵸 님

히쿠치 이치오우, 요사노 아키코, 화가의 우에무라 쇼엔이라는 여성이 등장하는 메이지 시대는 각 시대의 전환기와 같이, 새로운 것이 일본에 소개되어 받아 들여진 시대였다. 그러나, 일본이 1000년이상 모델로 했던 중국에의 의존을 끝내고 서양을 모델로 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점으로 그것들과는 다른 전환기 였다.

문학이라고 하는 단면에 있어서 메이지라고 하는 시대의 일본을 개선하고 글로벌한 시점으로 다시 파악한 이야기를, 작쵸님의 재미있는 말씨와 함께 수강자는 크게 즐거워 했다.

프로그램 지원

현대정책학부의 교원 교육프로그램

プログラム
支援

제1회 기초 연수회
2006년3월24일(금) 오후11시～오후8시30분
동경기오이쵸캠퍼스

대표자 : 오부치 요우이치(죠사이대학교 현대정책학부장 교수)
목　적 : 현대정책학부 교원의 교육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독자 프로그램의 개발

2006년도에서 부터 개설된 현대정책학부에서는 전임 교수의 교육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교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의 신청을 JICPAS에서 이루어져, 그것이 인정되어서, 곧 개설을 목전으로 한 3월24일(금), 동경기오이쵸 캠퍼스에서 제1회 기초 연수회를 실시했다.

기초 연수회는 현대정책학부 교원, 특히 신임 교원의 본교에서 적극적으로 커미트먼트를 이해하고, 익히도록 하여, 교육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되었다.
연수회에서는 미즈타 노리코 이사장을 시작으로, 다나카 아키라 학장, 모리모또 야스노리 교무부장, 시라하타 아키라 약학부장으로 부터 말씀이 있었고, 나아가 외부로 부터 이노우에 마사미 님(신일본인테그리티아슈아란스 주식회사)과 오자키 타이코 님(JIU공개강좌 비서 검정 대책 강좌 담당 강사)을 초대하여 연수가 행하여졌다.

미즈타 노리코 이사장으로 부터는「죠사이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방침」에 대하여, 다나카 학장으로는 「죠사이대학교의 40년의 발전과 금후」, 모리모또 교무부장으로는「죠사이대학교와 교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신임 교원에는 죠사이대학교의 발전의 역사, 교육이념, 조직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계속해서 시라하타 약학부장으로 부터 의료영양학과의 개설으로 부터, 4년간에 대하여의 말씀을

해 주셨고, 각 교원에 있어서 현대정책학부가 내세우고 있는 「퍼펙트프랑」의 실현을 위하여 참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

한편, 외부로 부터 오신 이노우에 님과 오자키 님에는 이노우에님이「대학의 사회적 책임」,오자키님이「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이나 리스크매니지먼트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뿐만아니라, 비지니스의 기초를 개정하여 배우는 일에 있서서 학생이나 학외의 여러분들의 대응, 고교방문, 기업방문으로 즉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되게 했다. 이번의 기초 연수회의 결과, 교원 한사람 한사람이 본교에의 적극적인 코미트먼트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초를 형성 했다고 생각한다.금후도 학부의 미션 수행에 필요가 되는 교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여러가지 연수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

관광학부의 교원 교육프로그램

제1회FD 2006년2월25일(토) ~26일(일)
제2회FD 2006년3월25일(토) ~26일(일)

대표자 : 이시다 마스미(관광학부 학부장, 교수)
목 적 : 관광학부 교원의 교육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

プログラム支援

고등교육을 둘러싸인 환경은 대학의 행방을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인재육성 니즈에 응하기 위한 직접, 동시에 지속적인 개혁에 몰두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단적으로 교육 내용이나 제도의 재검토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생지도에 적합한, 교원이 달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역할의 정의를 재검토하게 하여, 나아가 동시에 교원 자신의 마음이 해이해짐 없는 의식의 각성을 촉구하고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내는 방법 만들기 까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그 근본에서는 법인 및 본교의 역사나 전통을 교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귀속의식을 높이고 이것들이 새로운 개혁에 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었다.

2006년4월에 개설된 죠사이국제대학교 관광학부는 이러한 고등교육으로 둘러싸인 환경을 응시하고 전임 교직원의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 개발 연구를 JICPAS에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 거기에서는 학부 개설에 병합하여 착임 교원 전원에100%의 능력을 교육에 발휘하기 위하여 수업전개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리하여 철저하게 한 방책을 포함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직원 상호의 연계를 도모하여 「새로운 교육」을 계속 태어나게 하는 방안을 구축, 실천해 재검토를 하고 매뉴얼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관광학부에서는 개설하기 전에 2월25일(토)과 26일(일)에 제1회의 FD가 관광학부 입학 내정자에 대하여 현지 설명회에 맞추고, 계속해서 3월25일(토)과 26일(일)에 제2회의 FD가 신 고교3년생 대상의 오픈캠퍼스에 맞쳐서, 각각 실시 되었다.

제1회의 FD에서는, 먼저 이시다 마스미 학부장으로 부터 「관광학부의 목표한 교육에 대하여」라는 것으로, 관광학부의 방침, 육성하는 인재의 이미지와 교육의 세개의 축, 해외교육 프로그램의 위치 상정, 퍼펙트프랑등의 설명을 통하여 학부 목적과 학부 교육 목표에 대하여의 공통 인식이 확립하기 위한 말씀이 있었다.

계속하여 마스코 카쯔요시 부학장으로부터「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상의 포인트와 필요한 스킬」에 대하여, 또 상세한 학생 지도을 행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로 하고, 어떻게 대응 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있었다.

다음에는 쿠라바야시 마사또 교무부장으로 부터,「전임 교원의 업무와 평가」라는 제목으로 관광학부가 사고하는 대학 교육의 자질, 교원의 역할에 대하여 의식개혁의 필요성, 요구되는 직무와 근무체제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성과의 형태로 업무평가 시스템의 필요성과 그 시스템의 포인트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시다 학부장으로부터 신1년생의 교육으로부터 시작한 독자의 어드바이저 제도, 해외교육, 자격취득지도 등에 대하여의 설명이 있고, 4월에 신입생이 입학한 후의 효과적 실시를 향한 과제가 제시 되었다.

한달 뒤의 3월25일에 이루어진 제2회 FD에서는 와치야스코 교수로 부터 신입생에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하여, 마스코 부학부장으로부터 이수 등록 지도에 앞선 신년도의 준비가 착실히 이루어 졌다.

그 후, 전회에 제시되어진 과제에 대하여 이시다 학부장의 의장이 발표자로 부터의 발표, 토론이 이루어 졌다. 다음에, 쿠라바야시 교무부장으로 부터 전임 교원의 업무 평가 시스템 시작에 대하여의 설명과 참가자에 의한 토론이 행해 졌다. 그리고 마스코 부학부장으로 부터 2007년도 학생모집의 방침과 시책에 대하여, 연간 스케줄의 작성과 역할 분담등이 결정되어, 다음 연도를 향한 준비도 시작 되었다.

관광학부 개설전에 이루어진 2회의FD는, 관광학부 전임 교직원 간의 공통의식이나 전념하기 위한 과제에 관하여 공통이해를 형성하여, 나아가 교직원 전체의 연대감을 생겨나게 하여, 신 학부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기초의 구축이 크게 기여 했다고 생각 된다.금후도 특색 있는 학부로서 발전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완성 연차의 4년후를 시야에 FD실시가 예정되어 있다.

다양화 사회와 여성의 캐리어 지원 프로그램21

대표자 : 카와베 야미코(죠사이대학교 경영학부 준교수)
목적 : 여자학생을 위한 캐리어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원 연구 조사 프로그램의 개발

プログラム支援

글로벌화,IT화,소자 고령화와 새로운 사회구조의 변화가 급격히 진전 되고 있다. 그러한 중에, 졸업후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기 위하여, 본교의 여자 학생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이해하게 하고, 그것에 대응한 캐리어 의식을 높게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프로그램은 여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캐리어

형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원에 의한 프로그램을 이하와 같은 개발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①21세기, 다양화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여성 인재의 실태 조사와 육성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② 여성 교원에 의한 여자 학생의 캐리어 지원 개발을 행하는 것,③학부를 넘어서 여성 교원이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하는 것,④캐리어 지원을 실천하는 교원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를 하는 것,⑤타 학부에서의 이해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분석, 평가 및 공표를 통한 공유화를 도모하는 것의 계 다섯가지를 특색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해 왔지만, 2006년12월1일(금)에「여성 학생의 캐리어 형성」이라는 테마의 강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강사에는 매스컴 근무, 해외 유학, 외국계 기업 근무를 역임하고 창업한 GIAL 재팬 대표 세이미야 후미요님을 초청한다.

—실시예정활동—

강연회:여자 학생의 캐리어 형성
강　사:세이미야 후미요(GIAL재팬 대표)
목　적:①실제 사회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는 여성 인재의 이해를 깊게 하고,②캐리어의 구체적 내용과 달성을 향한 여자 학생의 의식을 환가하고 금후의 캐리어 형성에 활용해 간다.
일　시: 2006년12월1일(금) 오후3시15분?오후4시45분
주　최:다양화 사회와 여성의 캐리어 지원 프로그램21

출판조성

『젠더로 읽는 〈한류〉 문화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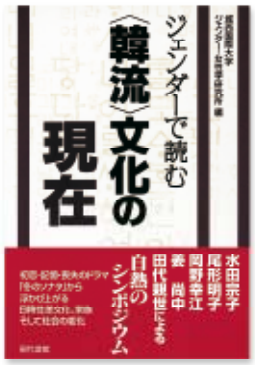
出版助成

JICPAS의 출판 조성 제도에 의한 죠사이국제대학교 젠더 여성학 연구소 편에서 현대서관으로부터 서적『젠더로 읽는〈한류〉문화의 현재』가 출판 되었다.

본서 제1부는 2005년2월26일에 학교법인 죠사이대학교 기오이쵸캠퍼스 완공 기념 행사로서 죠사이국제대학교 젠더 여성학 연구소, 동 대학원 여성학 전공, 죠사이단기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했던 심포지움의 기록이 되어 있다.이 심포지움에는 화제의 겨울연가를 채택하여 300명 정도의 관객이 있었던 것이다.

제2부는 동 연구소 연구원으로「겨울연가」를 처음으로 한국의 드라마, 소설, 영화, 관광에 대하여의 엣세이를 수록 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본서는 몇개의 신문의 신문란에 채택되어 그 효과도 있었는지,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젠더로 읽는
〈한류〉 문화의 현재
죠사이국제대학교 젠더여성학연구소 편
현제서관(1,500엔 +세)

국제 교류 활동

해외 연구자 초빙 프로그램

国際交流活動

제1회 2006년1월24일(화) 오후3시30분~오후5시30분
제2회 2006년2월14일(화) 오후3시30분~오후5시30분
제3회 2006년3월7일(화) 오후3시30분~오후5시30분

동경기오이쵸캠퍼스3F 302교실
강　사 : 제1회 樂美龍(상해 교통대학교 국제운항계 주임 교수)
　　제2회 조나산 응(홍콩대학교 공학부 생산시스템 공학과 준교수)
　　제3회 제럴드 박크(죠지아사우젠대학교 경영학부 준교수)
주　최 : 죠사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연구과

2006년1월부터 3월까지, 상해교통대학교, 홍콩대학교, 죠지아사우젠대학교의 3교로부터 서플라이 체인 (supply-chain) 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자를 각각 1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본교에 초빙하여 죠사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연구과와의 공동연구를 추진함과 함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 활동은 문부과학성의 과연비 보조금 예산에 의해 실시했던 프로젝트이다.

먼저, 1월24일(화)에는 상해교통대학교 부교장의 鄭成良 교수, 국제운항계 주임의 樂美龍 교수를 초빙했다. 상해교통대학교는 우리들의 연구 테마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분야에서 선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2월14일(화)에는 홍콩대학교로부터 조산 응 준교수를 초빙했다.어떻게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을 디자인 할 것인가의 연구 테마에 대하여 강의를 해 주셨고, 연구 교류를 심도 있게 했다.

3월7일(화)에는 미국의 죠지아사우젠대학교로부터

제럴드 박크 준교수를 초빙하여 프슈프르바운다리라는 개념을 사용했던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의 모델화에 대하여 강의를 부탁드리고,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여기에서의 연구 성과에 대하여서는 2005년도말의 본교 대학원 경영학연구과 발행의 영문 기요 "The Josai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에 논문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2006년도에도 계속해서 행하여지고, 현재 국내외의 학회지에 논문 투고, 또는 2006년도말 발행의 상기의 영문 기요에도 제2보가 게제될 예정이다.
이러한 해외 대학과의 연구 교류를 행하는 중에, 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 활동과의 연동을 강화하여 갈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2006년8월에는 하기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상해교통대학교의 환태평양연구센터의 협력으로 본교 대학원생7명이 상해에서 인턴십을 했다.참가 했던 대학원생 전원이 대단히 귀중한 연구와 체험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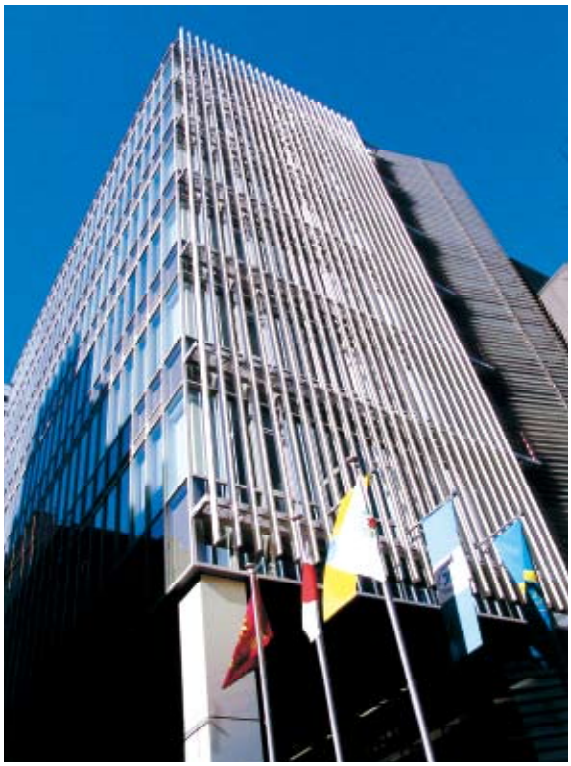
이 기획은 2006년1월에 본교에 내학 했던 상해교통대학교의 鄭 成 良 부교장과 본교의 미즈타 이사장과의 면담이 계기가 되어 실현되어진 것이다. 이제부터도 해외의 대학교와의 연구 교류를 계획함과 동시에, 교육활동으로 진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鄭成良 부교장이 미즈타 이사장을 인사 방문

鄭成良 부교장(앞줄 중앙)과 樂美龍 교수(앞줄 왼쪽)

●안내도

교통안내
●地下鉄有楽町線　麹町駅 1番出口로 부터 도보3분
●地下鉄南北線・半蔵門線　永田町駅 9番出口로 부터 도보5분
●地下鉄丸の内線・銀座線　赤坂見附駅 弁慶口로 부터 도보8분
●JR中央線・総武線　四谷駅로 부터 도보10분



學校法人 城西大學
城西大學／城西短期大學　城西國際大學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TEL.03(6238)1300
學校法人 城西大學 http://www.josai.jp/
城西大學 http://www.josai.ac.jp/　城西國際大學 http://www.jiu.ac.jp/

學校法人 城西大學　國際學術文化振興센터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TEL 03(6238)1300　FAX 03(6238)1299